

폭우 피해 최소화 소방관 활동 돋보여

구조활동 31건, 화재 26건, 구급활동 328건

8월1일부터 14일까지 포천지역에는 평균 511.65mm의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다.

8월 3일 포천 동에 시간당 102.5mm의 폭우가 내린 것을 비롯해 14일간 강풍을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가 포천지역 이곳저곳을 강타했다.

폭우가 쏟아진 것에 비해 피해는 크지 않았다. 포천시 자료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의 경우 하천 3개소와 소하천 4개소 일부 제방유실을 비롯해 소규모 시설 22개소, 기타 공공시설 2개소 등 총 32개소에서 3억6천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백운계곡과 깊은 계곡 등에는 피서객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객 수천명이 물놀이와 야영을 하고 있어서 자칫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인명피해와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포천소방서 소방관들의 남다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소방서는 31건 구조출동을 했다. 또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2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비오는 날씨가 많아 382건의 구급신고를 접수되어 294건에 312명의 환자를 이송 조치 했다. 이 기간동안 포천소방서의 구조활동과 화재진압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구조활동 상황

8월4일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

우로 불어난 일동면 길명리 하천에서 에어매트를 타고 물놀이 하던 피서객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서울시 구로구 기모씨(35세)가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소방서 41명의 119구조대는 출동 1시간여만에 만세교 부근에서 사체를 발견했다.

8월2일 이동면 도평리 하천에서 휴가를 맞아 물고기를 잡던 서울 마포구 남모씨(27세)가 빠른 유속에 의해 30여m를 1시간 동안 시멘트 구조물을 붙잡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8월3일 신음동 지역에 시간당 102.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119구조대를 비롯한 포천시 공무원 등이 참여한 한내천 공용주차장

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8월3일 폭우가 내려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저수지 계곡내에 행락객들이 고립되어 피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19구조대가 출동해 오후 9시57분 40명을 구조했고 10시10분경에는 나머지 5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대피방송에도 불구하고 깊이울유원지내 텐트 20여동에서 야영하던 피서객들이 대피를 거부했으나 설득해 대피하도록 했다.

8월4일 깊이울저수지 계곡에 출동해 행락객 5명을 대피시키고 남아있던 피서객 8명을 구조했다. 이 외에도 포천소방서 119구조대는 이동면 도평리 백운산 등

반도중 실족으로 다리부상을 입은 박모씨(56세)를 구조했다.

▶화재발생

8월16일 현재 포천지역에는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 26건이 발생해 2억9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8월1일 하루동안 낙뢰로 추정되는 주택과 전선주 15건의 화재가 발생해 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8월2일 포천시 군내면 조림식 주택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과 집기류 등 2천5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8월14일 가산면 마전리 H그라비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립식 공장건물과 창고, 천막가건물 등이 불에 타 9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소방서는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등 59명이 화재진압에 나섰다.

이보형 포천소방서장은 "구조활동과 화재진압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면서 "폭우가 내린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이 서장은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산간계곡에 대피방송을 했지만 행락객들은 무관심하다"면서 "자칫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강제성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8월1일부터 14일까지 포천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102.5mm가 내리는 등 게릴라성 폭우가 강타했다.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산과 계곡에는 많은 피서 인파가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포천소방서 남다른 노력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왼쪽 사진은 각출산에서 부상당한 등산객을 구조하는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영평천 일사지를 인양한 후 사신을 운구한 장면이다)

포천시 서기관 승진 A모 과장 유력

공직사회 전보발령에 촉각세우고 술렁

포천시는 지난 6월말로 이우성 생활지원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후속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 공직사회는 승진인사와 더불어 누가 어떤 자리로 이동하느냐에 촉각을 세

우면서 술렁이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일부 자리 이동과 승진자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말이나 혹은 9월초순경에 인사발령이 발표될 것"이라

고 밝혔다.

4급 서기관 승진 후보자로 2~3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와 비슷하게 나이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A모 과장이 승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지방행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승진자 1명은 행정직과 기술직 3~4명의 대상자 가운데 B모씨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무관 승진의 경우 연공서열 방식보다는 능력위주가 될 것이

라고 전망된다. 사무관 승진이 유력한 B모씨는 업무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전보발령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업무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인사관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은 전보발령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승진발령자 지리이동과 한자리에서 장기간 근무자를 중심으로 소폭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37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어떻게 추진되나
민·관 합동 혹은 순수 민간개발 방식 결정 못해
빠르면 10월 사업시행방식 확정, 내년 토지보상

포천시 영북면 아미리 187번지 일원에 400,000㎡에 조성되는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이 사업시행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는 최근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경기지방공사와 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를 협의해 왔으나 입지여건과 사업성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공영개발 방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포천시가 직접개발하거나 민·관합동개발(SPC) 혹은 순수 민간개발방식 등의 방안을 찾고 있다.

포천시 직영방식으로 봉화골 산업단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산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포천시는 봉화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민·관합동개발(SPC) 방식과 순수 민간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말경 (주)삼호는 자사가 시공을 맡고 우리은행과 제조사인 ZACOD, 포천시가 공동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SPC) 방식의 봉화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삼호가 제시한 제안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주)삼호가 시공사가 되어 일부 금액의 출자와 책임 시공 및 사업을 관리하고 금융사인 우리은행이 대출과 출자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 포천시가 일부 출자와 행정지원을 맡고 제조사인 ZACOD가 일부 출자 및 분양관리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8월17일 (주)한양은 포천시와 공동으로 (가칭)포천산단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총 사업비 560여원을 정부 지원금과 투자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민·관합동개발(SPC) 방식을 제시했다.

(주)한양이 제시한 SP 방식은 (가칭)포천산단주식회사가 자금관리책 입과 사업진행을 대행, 프로젝트 파 이낸싱 및 분양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봉화골 산업단지는 (가칭)포천산 단주식회사가 전체면적의 66.7%를 차지하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 용지 및 주차장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한다. 또 나머지 면적에 해당되는

도로와 공원, 완충녹지, 폐수처리장 등은 포천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포천시는 (주)삼호와 (주)한양 등 2개사에서 제시한 민·관합동개발(SPC)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순수 민간개발 방식으로 남양주 금곡과 평택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경영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민관합동개발과 순수 민간개발 등과 다각적인 사업시행 방식을 검토해 9월까지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경기지방공사와 토지공사 등에도 제의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492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월까지 사업시행방식을 선정하고 10월 사업시행방식 확정 및 업무협약, 11월 사업시행자 승인 신청 및 실시계획수립(각종 영향평가 실시), 2008년3월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2008년8월 실제 시공 착공 및 공사착수, 2009년12월 공사준공 및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다양한 시공기술 · 철저한 A/S를 자랑하는 재경전기(주)



공사상담 · 출장견적 환영

이런 공사를 합니다

- 공장
- 아파트
- 가로등
- 상가
- 학교
- 호텔
- 빌딩
- 전기소방
- 신호등

시공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공사와 철저한 A/S로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